**International Wood Pellet Markets with a Focus on Japan and South Korea**

**William Strauss and Annette Bossler**

일본과 한국 시장에 촛점을 둔 국제 목재펠릿시장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아넷 보슬러

The global market for wood pellets has undergone substantial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continued gains are expected as economie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green their energy production.

목재펠릿의 세계 시장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성장하였으며, 세계 경제가 에너지 생산에 있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Between 2010 and 2020, the global wood pellet market has experienced growth rates averaging 10.8% annually, from about 12.6 million metric tonnes in 2010 to about 38.8 million metric tonnes in 2020. This includes pellets for heat and industrial pellets for power.

2010년과 2020년 사이, 세계 목재펠릿시장은 매년 10.8%의 평균 성장을 겪었으며, 2010년 1천2백6십만톤에서 2020년 약 3천8백8십만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난방용 펠릿과 전력을 위한 공업용 펠릿을 포함한 것입니다.

The industrial pellet sector is, and will be, an important component in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generation.​ Policy frameworks in different nations vary, but all will drive increased demand for sustainable biomass – our analysis suggests that under these evolving policy regimes, the Industrial pellet sector is forecast to reach about ​ 43 million metric tonnes per year in 2027 – more than double 2019 demand​.

공업용 펠릿업계는 저탄소 전력생산으로의 전환을 뒷바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 국가의 정책이 다르지만 모두 지속가능적인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본 분석의 따르면 이러한 진화하는 정책에 따라2027년이면 공업용 펠릿이 매년 4천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8년 수요의 2배가 넘습니다.

You can listen to William and Annette’s full presentation, including specific forecast information for the Japan and South Korea wood pellet markets, here.

여기를 틀릭하시면 일본과 한국 목재펠릿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 정보가 담긴 윌리엄과 아넷의 전체 프리젠테이션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